

3.7GHz 대역 주파수 분배 놓고 SKT-LGU+ 신경전 격화

과기부, 주파수 할당 의견 수렴중 LGU+, ‘쪼개기 할당’ 반대 의견 SKT “이용자 많아 추가 할당 필요”



서울의 한 종합이동통신 대리점 모습. /뉴시스

정부가 이동통신 3사에 할당한 5G 통신용 28㎐에 대해 2개사에 대해 주파수 취소에 나서면서 현재 추가 할당이 논의되는 3.7~4.0㎐ 대역 주파수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5G 주파수 추가 할당에 대한 분석에 나서 추가 할당이 ‘급물살’을 타면서, 주파수를 신청한 SK텔레콤과 이에 반대하는 LG유플러스 간 갈등이 크게 고조되고 있다.

LG유플러스는 특히 이동통신 3.7~4.0㎐ 대역을 이통 3사가 공동망으로 구축하는 방안을 제안해 SKT만의 주파수 추가 할당을 저지하고 나섰다.

SKT는 당초 지난 1월 LG유플러스가 5G 주파수 추가 경매에 입찰해 3.40~3.42㎐ 대역 주파수를 추가 할당받기 전 ‘LG유플러스에 대한 정부의 5G 주파수 추가 할당이 불공정하다’며 3.7~3.72㎐ 대역 20㎐ 폭도 추가 할당해줄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정부는 우선 LG유플러스 건에 대해서만 할당을 하고, 나머지 대역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논의를 거쳐 할당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SKT가 신청한 3.7~3.72㎐ 대역 20㎐ 폭 추가 할당에 대한 논의를 본격 진행하고 나서 주파수 할당시기

가 당초 예상보다 빨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과기정통부는 산학연 연구반을 통해 3.7~3.72㎐ 대역 주파수 할당에 관한 의견 수렴을 진행 중이다. LG유플러스는 이에 대해 반대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황현식 LG유플러스 대표이사는 주파수 할당을 신청한 SKT의 3.7㎐ 주파수 대역과 관련해 ‘쪼개기 할당’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황 대표는 “3.7㎐ 대역 쪼개기식 할당에 반대하고 이통 3사간 공동망 구축을 제안한 것은 앞으로 미래를 위해 상당히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한다”며 “과기정통부와 타사들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줬으면 한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 7월 LG유플러스는 5G 주파수 추가 경매에 단독 입찰해 총 1521억원을 들여 3.40~3.42㎐ 대역 주파수를 추가 할당받았다. 이를 통해 지난 1일 강원도 일부, 전라북도, 전라남도, 제주도 지역 등 농어촌 5G 공동망 지역에 100㎐ 서비스를 개시했다. LG유플러스는 그동안 다른 이동통신사보다 타사보다 20㎐ 적은 80㎐ 폭의 주파수를 보유해 SK텔레콤, KT보다 상대적으로 통신 품질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는데, 지난 7월 추가 주파수 할당으로 다른 이통사와 동일한 주파수를 확보하게 됐다.

SKT 관계자는 “우리 회사에서 3.7G Hz 대역 할당을 요청했고 과기부 연구반에서 이를 검토중”이라며 “주파수 추

가 할당 요청은 증가하는 5G 가입자 수요에 안정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밝혔다. 그는 “SKT가 5G 이용자수가 가장 많아 5G 인당 주파수는 가장 적기 때문에 조기에 추가 대역폭을 확보해 서비스 품질을 안정적으로 가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통 3사의 5G 가입자수를 살펴보면 SKT는 1222만명인 데 비해 KT 779만명, LG유플러스 559만명으로 SKT가 입자가 월등히 높다. 1인당 주파수 대역폭은 각각 8.2Hz, 12.8Hz, 17.8Hz로 SKT의 인당 주파수가 매우 적은 상황이다. SKT는 5G 다운로드 속도나 5G 커버리지 평가에서 3사 중 1위를 차지하는 하지만, 설비투자와 기술력으로 불리한 부분을 극복하고 있는 것으로, 주파수 대역폭이 제한된 상태에서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어 추가 할당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 LG유플러스는 3.7~3.72㎐ 대역은 SKT가 이미 가지고 있는 주파수의 인접대역이라는 이유로 추가 할당을 반대하고 있다. 주파수 전략에 따라 각 통신사가 경매를 통해 주파수를 배정 받아야 하는데 특정 통신사가 원활 때 주파수를 조금씩 잘라서 주면 ‘특혜가 된다’는 입장이다. 반대 진영에서는 이는 SKT의 주파수 ‘알박기’라며 반발하고 있다. 그러나 LG유플러스도 지난 7월 자사 주파수 인접대역인 3.40~3.42㎐ 대역 주파수를 할당 받은 바 있다.

KT는 명확하게 반대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지만, 반대 입장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300㎐ 폭 중 일부 주파수를 쪼개서 먼저 할당하는 것은 전파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상반되는 편편화를 초래한다”며 “과기정통부의 지난 6월 2일 보도자료를 보면, SKT가 신청한 20㎐ 주파수에 대해 ‘일부 대역을 분리하여 공급하는 경우, 잔여 280㎐폭의 이용 효율이 낮아질 수 있고 향후 통신경쟁 환경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연구반이 결론을 낸 적 있다는 것을 감안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KT는 3.7~3.72㎐ 대역이 SKT의 인접대역이고 KT의 대역과는 거리가 있다 보니 이번 주파수 할당에 신청을 하기도 무리수여서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다. 특히 SKT가 할당을 요청한 3.7㎐ 이상 대역에서는 항공기 전파고도계 간섭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만큼 이 주파수 할당에는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전파고도계는 4.2~4.4㎐ 대역을 사용하는 비행기 고도 측정장치로 이착륙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 간섭 문제를 따지지 않을 수 없다.

이에 대해 SKT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국내에서 확인된 이슈가 전혀 없으며, 이슈가 제기된 미국에서도 이미 해결된 상황”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채윤정 기자 echo@metroseoul.co.kr

“달리 매도 미루자”... 외화예금 81억弗 증가

원·달러 환율 상승 전망 기업, 달러 금고에 보유

지난달 우리나라 외화예금 잔액은 81억달러 증가했다. 지난달 원·달러 환율이 오르자 기업들이 수출대금으로 받은 외화를 매도하지 않고 보유한 영향이다.

한국은행이 22일 발표한 ‘2022년 10월중 거주자외화예금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외국환은행의 거주자외화예금은 976억5000만달러로 전달(895억달러) 대비 81억5000만달러 증가했다.

거주자 외화예금이란 ▲내국인 ▲국

내기업 ▲국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외국인 ▲국내에 진출해 있는 외국기업 등이 국내에 보유한 외화예금을 말한다.

통상 기업들은 월말에 수출대금으로 받은 외화를 원화로 바꿔 국내에서 사용한다. 지난달 원·달러 환율이 오를 수 있다는 관측에 기업들이 달러 매도를 미룬 것으로 풀이된다. 원·달러 환율은 지난 9월 평균 1391.59원에서 10월 1426.66원으로 35원 넘게 올랐다.

지난달 달러화예금 잔액은 848억달러로 전달(772억6000만달러)과 비교해 75억4000만달러 늘었다. 엔화예금 잔

액은 전달보다 4억3000만달러 늘어난 57억1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유로화예금 잔액은 41억1000만달러로 전달 대비 3000억원 줄었다.

은행별로 보면 국내은행 외화예금은 66억6000만달러 늘어난 885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외국계 은행 국내지점은 14억9000만달러 늘어난 90억6000만달러로 집계됐다.

기업예금은 833억8000만달러로 전달 대비 78억2000만달러 늘고, 개인예금은 142억7000만달러로 3억3000만달러 늘었다.

/나유리 기자 yul115@



코란도 이모션을 활용한 무선충전 플랫폼

쌍용차, 전기차 무선 충전 플랫폼 공개

산업부 국책 과제로 개발중

쌍용자동차가 전기차 무선 충전 플랫폼을 선보이며 미래 기술 역량을 확인한다.

쌍용차는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는 ‘2022 전파방송산업 진흥주간’에서 산업부 국책 과제로 개발중인 ‘전기자동차 무선 충전 플랫폼’을 전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쌍용차는 코란도 이모션을 활용해 22kW 무선 충전 시스템을 소개한다. 61.5kWh 리튬이온 폴리머 배터리를 3시간 가량이면 충전할 수 있다. 유선 충전 시스템 케이블 무게로 인한 불편함도 해소할 수 있다.

쌍용차는 충전 시간을 단축하는 기술도 추가 개발 중이다. 정차 중 무선 충전

뿐 아니라 급전선로를 통해 주행 중에도 충전할 수 있는 새로운 혁신 기술도 개발 중이다. 상용화될 경우 배터리 용량을 대폭 축소할 수 있어 소비자 부담을 줄일뿐 아니라 환경도 보호하는 전기차도 새로 내놓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쌍용자동차는 2020년부터 2024년까지 한국자동차연구원 및 한국과학기술원, 한국전기연구원, 연세대학교, ㈜동양이엔피, ㈜바이에너지 등과 산업부 국책과제 ‘전기자동차용 고안전/고편의성 무선 충전 플랫폼 상용화 개발’에 참여하여 연구개발을 수행하고 있으며, 실차 검증 및 신뢰성 시험을 거쳐 양산 체제를 구축할 계획이다.

/김재용 기자 juk@

‘모니터 딜로이트’, 한국 시장 출격

다양한 전략 컨설팅 서비스 제공

딜로이트가 전략컨설팅 사업을 시작한다. 딜로이트컨설팅코리아는 ‘모니터 딜로이트’를 국내에 공식 출범한다고 21일 밝혔다.

모니터그룹은 경영전략과 혁신 분야에 특화된 컨설팅 서비스다. 1983년 설립 이후 전 세계 기업과 정부 사이에서 명성을 쌓아왔으며, 딜로이트에는 2012년 인수됐다.

모니터 딜로이트는 전 세계 150 여개

이상의 국가에서 다양한 전략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TMT(테크, 미디어 & 통신), LSHC(생명과학 및 헬스케어), 소비자 및 고객(Consumer Business), 에너지 자원 및 중공업(Energy, Resources & Industrials), 자동차와 모빌리티(Automotive), 금융 산업(Financial Services) 등 특화 분야에서 성장전략(Organic Growth), 전략주도 혁신(Strategic Transformation), 벤처 혁신(Innovation & Venture), 비즈니스 설계(Business Des

ign & Configuration), 전략적 모니터링 및 인사이트(Strategic sensing & Insight) 서비스 등에 강점이 있다.

딜로이트 컨설팅은 오는 2023년을 전략컨설팅 서비스 강화의 원년으로 삼고 심현보 딜로이트 컨설팅 부사장을 모니터 딜로이트 리더로 선임, 전략 컨설팅 부문 강화를 위한 서비스 보강과 역량 있는 인재 육성에 집중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모니터 딜로이트는 내년 초 광화문에 ‘모니터 딜로이트’ 오피스를 오픈하고 기존의 전략&비즈니스디자인 부문 내 소비자 및 헬스케어 부문, 서비스와 중공업 및 산업재 등의 서비스를 보강해 나갈 계획이다. /김재용 기자